

1. 2004년8.7 국가직7급 국어

【문 1】 다음 중 밑줄 친 낱말을 한자로 올바르게 바꾸어 쓴 것끼리 묶인 것은?

- ㉠ 남원에 가면 이몽룡과 성춘향에 얹힌 고사가 있다.
 ㉡ 나는 2년 전에 출간한 책의 잘못된 부분을 고쳐 개정판을 내었다.
 ㉢ 김화백의 그림은 매우 사실적이다.
 ㉣ 세계화 시대에는 다른 나라의 문화를 잘 수용할 필요가 있다.

- ① 古史-改定版-寫實-受用 ② 古史-改訂版-事實-受容
 ③ 故事-改訂版-寫實-受容 ④ 故事-改定版-事實-受用

【문 2】 로마자 표기법에 어긋나게 적은 것은?

- ① 구리-Guri ② 설악-Seorak
 ③ 울릉-Ulreung ④ 신라-Silla

【문 3】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바르지 않은 것은?

그가 ㉠ 열흘 만에 다시 돌아 왔다. 짧은 기간이지만 그의 행색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교실 문을 박차고 나갈 때만 하더라도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기세였지만 막상 학교를 떠나서는 마땅히 갈 데가 없었던 모양이다. 마음 같아서는 용서해 주고 싶었지만 다른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도 있고 해서 이번만은 ㉡ 학칙대로 처벌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 반장겸 학생회장을 맡고 있었기에 이번 사건이 학교에 미칠 파장은 실로 큰 것이었다. 마음 같아서는 ㉣ 집에서처럼 따뜻하게 감싸주고 싶었지만 공동체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하여 원칙대로 처리하였다.

- ① ㉠ ② ㉡ ③ ㉢ ④ ㉣

【문 4】 다음 중 밑줄 친 낱말의 쓰임이 정확한 것은?

- ① 바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10년간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어머니를 찾아 뵈었다는 것은 그가 효성스럽다는 것을 반증(反證)한다.
 ② 큰물이 온 마을을 덮치는 와중(渦中)에서도 박 계장은 침착하게 이웃들을 보살폈다.
 ③ 쌀 한 포대라도 더 사서 농민의 애환(哀歡)을 위로하자.
 ④ 그가 고생 끝에 성공한 사례를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 우리도 열심히 노력하자.

【문 5】 다음 글에서 통일성을 깨뜨리는 문장은?

㉠ 구체적으로 법의학은 죽은 사람의 신원을 확인한다. ㉡ 또 사망의 종류를 판별하며 사망 시간을 알아내야 한다. ㉢ 그리고 범죄와 관련있는 경우라면 범인을 잡아야 한다. ㉣ 현장에서 증거물을 채취해 범인을 색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일을 한다.

- ① ㉠ ② ㉡ ③ ㉢ ④ ㉣

【문 6】 다음 중 밑줄 친 부분과 같은 의미의 동작 상황을 나타내는 문장은?

영수는 의자에 앉아 있다.

- ① 영수는 부산에 가고 있다.
 ② 영수는 수업이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모자를 쓰고 있다.
 ③ 영수는 문을 두드리고 있다.
 ④ 영수가 도착하고 있다.

【문 7】 다음 중 순화 대상어와 바르게 짝지어지지 못한 것은?

- | | |
|---------------------|-----------------|
| ① 노견(路肩)-길옆 | ② 곤색-검남색 |
| ③ 거래선(去來先)-거래처(去來處) | ④ 내사면(內斜面)-안 비탈 |

【문 8】 다음 중 밑줄 친 낱말이 올바르게 쓰인 것은?

- ① 며칠 후 자문을 구하러 가겠습니다.
 ② 숙박비를 카드로 결제하였다.
 ③ 세계적인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가 경쟁력이 재고되어야 한다.
 ④ 교사는 학생의 잠재적인 창의성이 계발되도록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문 9】 다음 중 외래어 표기법에 맞게 적은 것은?

- | | |
|-------|-------|
| ① 리더쉽 | ② 비전 |
| ③ 케이크 | ④ 워크샵 |

【문 10】 다음은 이효석의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의 일부이다. 밑줄 친 낱말의 뜻이 잘못 설명된 것은?

여름 장이란 애시당초에 글러서, 해는 아직 중천에 있건만 장판은 벌써 쓸쓸하고, 더운 햇살이 벌려 놓은 건 휘장 밑으로 등줄기를 훌훌 붉는다. 마을 사람들은 거지반 돌아간 뒤요, 팔리지 못한 나무꾼 패가 길거리에 궁싯거리고 있으나, 석유병이나 받고 고깃마리나 사면 족할 이 축들을 바라고 언제까지든지 버티고 있을 법은 없다. 쭈쭈스렵게 날아드는 파리 떼도 장난꾼 각다귀들도 귀찮다. 얼금뱅이요 윈손잡이인 드팀전의 허생원은 기어이 동업의 조선탈을 나꾸어 보았다.

- ① 궁싯거리고 : 별 할 일 없이 머뭇거리고
 ② 쭈쭈스렵게 : 매우 빠르게
 ③ 얼금뱅이 : 얼굴이 얼금얼금 얇은 사람
 ④ 드팀전 : 포목전

【문 11】 다음 중 밑줄 친 낱말을 정확하게 사용한 문장은?

- ① 여러 가지 상품을 벌려 놓았지만 손님이 없다.
 ② 약 기운으로 말미암아 의식이 흐리멍텅하다.
 ③ 그 가족들은 수술결과를 안절부절하며 기다렸다.
 ④ 늑장부리지 말고 빨리 해야 한다.

【문 12】 다음 중 한자어의 뜻풀이가 잘못된 것은?

- ① 湮滅 : 자취도 없이 모두 없어짐
 ② 親展 : 편지를 받을 사람이 직접 펴 보라고 편지 겉봉에 적는 말
 ③ 貶下 : 가치를 깎아내림
 ④ 造詣 : 아름답게 꾸밈

【문 13】 다음 중, “水至(㉠)則無魚 人至察則無(㉡)(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없고 사람이 너무 살피면 따르는 무리가 없다)”에서 ㉠, ㉡에 맞는 것은?

- | | |
|------|------|
| ㉠ 淨徙 | ㉡ 晴待 |
| ① 淨徙 | ② 晴待 |
| ③ 淸徙 | ④ 汀群 |

【문 14】 다음에 제시된 자료를 참고하여 우리말 받침의 발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가. ‘났다, 뉘다, 읽지, 읽고’의 발음은 [뵤따], [닐따], [익찌], [일꼬]이다.
 나. ‘넋, 값, 삶, 앓다, 정직’의 발음은 [넋], [갑], [삼], [안따], [정직]이다.
 다. ‘갓, 빗, 있고, 꽃, 술’의 받침(끝소리) 발음은 모두 ‘ㄷ’으로 난다.
 라. ‘옷을, 옷 안’의 발음은 [오슬], [오단]이다.

- ① 국어 표준발음에서 음절의 끝소리로 발음될 수 있는 자음은 ‘ㄱ, ㄴ, ㄷ, ㄹ, ㅁ, ㅂ, ㅇ’ 7개 자음이다.
- ② 겹받침의 경우 ‘ㄹ, ㄷ’의 발음은 불규칙적이다.
- ③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식형태소(조사, 어미, 접미사)가 오는 ‘흙을’의 발음은 [흙글]이다.
- ④ 모음(ㅏ)으로 시작되는 실질형태소가 오는 ‘닭 앞’의 발음은 [닥압]이다.

【문 15】 다음 중 한자로 적을 수 없는 말로만 묶인 것은?

- ① 저울, 당근, 고구마, 마늘
- ② 꿀, 배, 감자, 사과
- ③ 사자, 호랑이, 늑대, 여우
- ④ 의자, 걸상, 테이블, 지붕

【문 16】 다음 식순으로 볼 때, 이 행사의 형식에 해당되는 것은?

식순
개회사-회장
축사-전라남도지사
주제발표
주제 : 영산강, 경제 개발이나 환경보존이나
발표자
김복동(환경청)-영산강 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김철수(○○박물관)-영산강 유역 개발과 문화 유산
홍길동(상공회)-영산강 개발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참고 사항
1. 청중의 질문을 생략합니다.
2. 발표자간 토의의 시간은 없습니다.

- ① 공청회 ② 토론회 ③ 배심토의 ④ 심포지엄

【문 17】 다음 글이 설명하는 고전 소설의 제목은?

이 소설의 창작 동기는 작가 김만중(金萬重)이 어머니 윤씨를 위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며, 소설 속에 펼쳐지는 파란만장한 인간사의 대부분은 여성들의 현세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부귀영화와 그것을 위한 투쟁과 갈등이다.

- ① 홍길동전(洪吉童傳) ② 구운몽(九雲夢)
- ③ 사씨남정기(謝氏南征記) ④ 춘향전(春香傳)

【문 18】 다음 두 시의 공통적인 특성을 수사학적 개념으로 올바르게 나타낸 것은?

(가) -MENU-
샤를로 보틀레르800원
칼 샌드버그800원
프란츠 카프카800원
이브 본느프와1,000원
예리카 중1,000원
가스통 바슐라르1,200원
이하브 핫산1,200원

제레미 리프킨1,200원
 위르겐 하버마스1,200원
 시를 공부하겠다는 미친 제자와 앉아 커피를 마신다 제일 값싼 프란츠 카프카
 -오규원, '프란츠 카프카'

(나) 녀석의 하숙방 벽에는 리바이스 청바지 정장이 걸려 있고
 책상 위에는 쓰다만 사립대 영문과 리포트가 있고 영한 사전이 있고
 재떨이엔 필터만 남은 켄트 콩초가 있고
 서랍안에는 묶은 플레이보이가 숨겨져 있고
 방 모서리에는 파이오니아 앰프가 모셔져 있고
 레코드 쏫이에는 레오나드 코헨, 존 레논, 에릭 클랩튼이 꽂혀 있고
 방바닥엔 음악 감상실에서 얻은 최신 빌보드 차트가 팽개쳐 있고
 쓰레기통엔 코카콜라와 조니 워커 빈 병이 쭈서 박혀 있고
 그 하숙방에, 녀석은 혼곤히 취해 대자로 누워 있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꿈쩍도 않고
 -장정일, '하숙'

- ① 은유 ② 환유 ③ 대조 ④ 비교

【문 19】 이 소설의 감상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치는 경멸하고 있다. 그 경멸이 실은 강한 관심과 아버지 일 때문에 그런 모양으로 나타난 것인 줄은 알고 있다. 다음에, 부채의 안쪽 좀더 좁은 너비에, 바다가 보이는 분지가 있다. 거기서 보면 갈매기가 날고 있다. 윤애에게 말하고 있다. 윤애 날 믿어 줘, 알몸으로 날 믿어 줘, 고기 썩는 냄새가 역한 배안에서 물결에 흔들리다가 깜빡 잠든 사이에, 유토피아의 꿈을 꾸고 있는 그 자신이 있다. 조선인 콜호스 숙소의 창에서 불타는 저녁놀의 힘을 부러운 듯이 바라보고 있는 그도 있다. 구겨진 바바리코드 속에 시래기처럼 바랜 심장을 하고 은혜가 기다리는 하숙으로 돌아가고 있는 9월의 어느 저녁이 있다. 도어에 뒤통수를 부딪치면서 악마도 되지 못한 자기를 언제까지나 웃고 있는 그가 있다. 그의 삶의 터는 부채꼴, 넓은 데서 점점 안으로 오므라들고 있었다.마지막으로 은혜와 둘이 안고 뒹굴던 동굴이 그 부채꼴 위에 있다. 사람이 안고 뒹구는 목숨이 꿈이 다르지 않느니, 어디선가 그런 소리도 들렸다. 그는 지금, 부채의 사복자리에서 있다. 삶의 광장은 좁아지다 못해 끝내 그의 두 발바닥이 차지하는 넓이가 되고 말았다.자 이제는? 모르는 나라, 아무도 자기를 알 리 없는 먼 나라로 가서, 전혀 새사람이 되기 위해 이 배를 탔다. 사람은,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자기 성격까지도 마음대로 골라잡을 수도 있다고 믿는다. 성격을 골라 잡다니! 모든 일이 잘 될 터이었다. 다만 한 가지만 없었다면. 그는 두 마리 새들을 방금까지 알아보지 못한 것이었다. 무덤속에서 몸을 푼 한 여자의 용기를, 방금 태어난 아기를 한 팔로 보듬고 다른 팔로 무덤을 깨뜨리고 하늘 높이 치솟는 여자를, 그리고 마침내 그를 찾아내고야 만 그들의 사랑을. 돌아서서 마스트를 올려다본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다. 바다를 본다. 큰 새와 꼬마 새는 바다를 향하여 미끄러지듯 내려오고 있다. 바다. 그녀들이 마음껏 날아 다니는 광장을 명준은 처음 알아본다. 부채꼴 사복까지 뒷걸음질친 그는 지금 핑그르르 뒤로 돌아선다. 제정신이 든 눈에 비친 푸른 광장이 거기 있다.
 - 최인훈의 '광장'에서

- ① 다른 전후(戰後) 소설과의 상호텍스트적 관계에서 감상한다.
 ② 일인칭 시점 소설의 내성적 성향을 고려하면서 감상한다.
 ③ '광장'의 상징성에 주목하여 주제를 파악한다.
 ④ 주인공의 사변적인 성격이 소설의 서사전략이나 주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본다.

【문 20】 다음 글의 구조에 대한 분석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오늘날 21세기의 문화적 정체성 즉 문화적 전용 양상이 각별한 문제로 제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오늘날 생긴 정체성 즉 문화적 전용 양식의 새삼스러운 질적 변화가 아니라 그 변화의 속도와 폭의 양적 변화가 몰고 온 사회적 및 심리적 혼란에서 찾을 수 있다. ㉢문화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과는 달리 정체성이라는 이름으로 착각되는 영원불변한 실체가 아니다. 그것은 부단한 변화와 변질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양상 그 자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지구 각처의 여러 사회집단들이 각계 각층에서 체험했던 문화적 변화의 속도와 그 폭은 느낄 수도 볼 수도 없을 만큼 적었다. 이런 이유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문화적 집단 속에서 그것에만 고유하게 존재한다고 착각되는 일정한 삶의 패턴을 읽을 수 있었다. 과거에 이러한 상태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지역간의 인적, 정보적 접촉, 상호 침투 등 문화적 전용의 폭과 속도가 적고 느렸기 때문이다.

- ① ㉠은 문제제기에 해당한다.
 ② ㉡은 이 글 전체의 일반적 진술에 해당한다.
 ③ ㉢은 일반적 진술에 대한 구체화에 해당한다.
 ④ ㉣은 반론 제기 단락이다.

<정답>

1	2	3	4	5	6	7	8	9	10
3	3	3	2	3	2	1	4	3	2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4	4	3	4	1	4	2	2	2	4